

핀테크와 중소기업(SME) 금융

오세경* · 한석만**

〈요 약〉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SME금융에 대한 핀테크의 영향에 대해 최초로 포괄적인 검토를 하여 SME금융에 있어 핀테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핀테크는 기존에 금융제약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SME에게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고용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SME금융의 핵심 핀테크 영역을 P2P대출, 전자상거래금융, 송장금융, 공급체인금융, 무역금융 및 클라우드펀딩 등 6개로 구분한 핀테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영역별 핀테크 솔루션들이 SME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핀테크 플랫폼 유형별 특징 및 선진 사례를 살피고, 현재 우리나라의 핀테크 관련 법적 제도적 환경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핀테크가 SME금융의 대안이 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SME 핀테크 프레임워크의 솔루션들은 SME 재무제표 상 자산, 부채 및 자본 부문에서 긍정적인 재무적 영향을 주고, 안정된 현금흐름 및 수익성 유지가 가능하고 매출채권 양도 및 매각 등으로 운전자금 추가확보가 가능하게 될 수 있으며,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결제조건 및 신용거래확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ME 핀테크는 시장기능에 따라 혁신 및 발전이 진행되어야 하고, 규제와 정책제도는 게임조정자가 되어 핀테크 금융서비스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존 금융을 보호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SME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핀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여러 법규의 정비와 정부규제 철폐, 부처간의 조정 등 많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발전특별법 등의 형태로 기존규제를 통합정비하고 대통령 직속기구 등으로 혁신추진력을 갖춘 조직에서 발전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핵심단어 : 중소기업(SME), 금융제약, 핀테크 프레임워크, 핀테크 솔루션, SME 재무적 영향
JEL: G28, G21, O35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교신저자, 지피코리아보협중개,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1.서론

중소기업(이하 SME)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세계 각국정부, 관련기관 및 국제기구들은 SME 금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지급보증이나 직접대출, SME 전담은행에 대한 지원확대, SME 신용평가제도 개선 등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등의 SME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 금융시장 환경에서 SME의 자금조달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금융(은행)이 SME에 대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인 첫째 이유는 SME의 정보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이 심하기 때문이다. SME는 은행이 요구하는 검증된 회계기록 등 필요한 정보제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SME 금융제공에 시간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특히 기존의 관계기반 기업금융 모델로 소규모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둘째, SME는 중소기업 고유의 높은 리스크를 갖고 있고, SME 대출에 대한 높은 자본요건을 요구하는 바젤III와 같은 규정에 의해 대출에 많은 부담이 된다. 따라서 SME 금융의 대부분은 주로 정책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적 신용제공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반 금융기관은 일부 제한적 범위 내에서 SME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SME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과 함께 일반적인 상거래와 무역에서도 금융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SME의 경우 B2B 부문에서 대부분 신용거래(trade credit)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기술, 경험과 자원의 부족으로 SME가 자체적으로 거래신용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B2B 거래에서 대부분 SME는 대형고객에 비해 불리한 협상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급지연 또는 연체지불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다. 외상매출금수금의 지연은 많은 SME들에게 현금흐름의 악화와 운전자금의 부족 등 심각한 재정적 고통을 안겨주고 심지어 흑자도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SME들은 무역금융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SME에 대한 무역금융 옵션이 종종 제한적이고, 자체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처리할 내부자원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높은 위험으로 SME에 무역신용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ICC, 2014).

이러한 상황에서 핀테크는 SME금융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핀테크시장은 최근 수년 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¹⁾, 금융서비스 부문의 비즈니스모델과 첨단 IT기술이 결합한 핀테크(fintech)는 소액 금융시장에서 더욱 효율적 기능을 갖고, SME에 대한 자금대출과 신용위험평가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F, 2015). 핀테크는 기존의 제도권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SME에 특화된 새로운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SME의 접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SME는 핀테크 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원활한 자금공급원을 제공받아 안정된 현금흐름 및 수익성 유지가 가능하고, 매출채권 양도 및 매각 등으로 낮은 금리로 운전자금 추가확보가 가능하며,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결제조건 및 신용거래 확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1) 세계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는 2011년 1,059억달러에서 2017년 7,210억달러로 6.8배 성장이 예상되며(Gartner), 글로벌 핀테크 시장 투자 규모는 2008년 9.3억달러에서 2014년 122억달러로 13배 성장했다(Accenture).

이미 전 세계적으로 SME에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핀테크 플랫폼의 주요 운영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P2P대출은 핀테크 솔루션의 가장 중요한 상품으로 Santander Innoventures(2015)에 의하면 투자금 중 27%는 소비자대출에, 16%는 기업대출에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대출 플랫폼 회사는 Zopa, Lending Club과 SoFi가 대표적이고, OnDeck과 MarketInvoice 같은 플랫폼 회사가 SME에 주로 대출을 하고 있다. 투자부문에서는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Seedrs, Crowdcube 또는 OurCrowd 등이 SME나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연결하고 있다. 한편 은행 및 브로커가 제공하는 송금 및 외환 서비스를 WorldRemit, Kantox 또는 CurrencyFair 같은 핀테크 플랫폼회사가 선도적인 솔루션 기술을 통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M-Pesa(케냐) 또는 EcoCash(짐바브웨)와 같은 핀테크회사들은 이동통신기기(휴대전화, 태블릿)로 거래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핀테크 현실은 세계적 핀테크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영국, 미국, 중국에 비교하면,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낙후된 후진국형 환경이다. 특히 SME금융을 위한 핀테크는 일부 P2P대출플랫폼과 지급결제포털이 운영되고 있을 뿐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핀테크혁신 논의는 핀테크 관련 제도, 플랫폼 및 IT 기술에 대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금융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소액, 저신용 금융사용자 입장에서 적합한 핀테크 기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금융제약을 겪고 있는 SME의 재무 및 경영 여건개선을 위한 핀테크의 활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SME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핵심 핀테크 영역을 P2P대출, 전자상거래금융, 송장금융, 공급체인금융, 무역금융 및 크라우드펀딩 등 6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 핀테크 솔루션이 SME의 대차대조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핀테크 플랫폼 유형별 특징 및 선진 사례를 살피고, 현재 우리나라의 핀테크 관련 법적 제도적 상황과 비교한 다음, 각 핀테크 솔루션이 우리나라 SME금융의 대안이 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SME금융에 대한 핀테크의 영향에 대해 최초의 포괄적 검토를 진행하여 SME 금융에 있어 핀테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한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핀테크는 기존에 금융제약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SME에게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고용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핀테크와 SME금융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 SME금융 핀테크 프레임워크와 각 영역별 핀테크 특징 및 SME금융에 대한 영향을 살피고, 4장에서 SME금융 핀테크 발전방안을 제시한 다음, 5장에서 결론을 맺는 것으로 구성된다.

2. 핀테크와 SME금융 선행연구

SME금융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재무분석과 정책금융 등 제한적 분야에 대해 이루어지고, SME에 대한 기업재무 데이터 부족과 제한된 정보 때문에 주로 상장 또는 외감기업 등

규모가 크고 금융과 정책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SME의 기업금융과 재무적 환경에 대한 선행연구를 은행과 간접금융 관련 연구, 정책금융(신용보증 및 무역금융 등)관련 연구, 전자금융 및 핀테크 관련 연구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손상호(2013)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금은 대부분 은행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금융이 시장기능에 의해 제대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관계형 금융과 컨설팅 기능이 활성화되어 기업 정보의 수집부터 원활해야 할 것을 보고하고 있다. 서지용(2011)은 국내은행들의 SME 대출 제약환경을 은행 입장에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 확대조치, 국책은행들의 대출 안정화 기능강화, 선제적 충당금 제도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성룡(2013)은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금융제약이 존재하며, 기업규모가 증가하거나 경기가 호황일수록 중소기업의 금융제약이 완화되고 투자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성승제(2014)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에서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서지용, 이건희(2015)는 국내 중소기업이 주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차입과 정부의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국내 온렌딩 대출의 경우 은행의 대출심사에 따라 담보확보가 용이하고, 신용위험이 낮은 우량 중소기업에 국한하여 단기 운전자금 위주로 지원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배정한(2008)에 의하면 현재 국제팩토링 이용자는 주로 소규모 무역거래를 영위하는 중소기업들로서 복잡한 거래절차를 원치 않으며, 또한 신속한 수출대금의 회수를 원하거나 담보부족 등으로 신용장 발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기업의 우량 수출거래 위주로 수출팩토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에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전병영(2015)은 우리나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취약한 해외신용평가, 위험인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고, 현재 지원하는 무역금융지원제도는 시중 이자율과 거의 차이가 없는 자금지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Bruton, Khavul, and Wright(2014)는 새로운 금융 대안으로 소액금융, 클라우드펀딩과 P2P 대출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금융의 새로운 혁신에 대한 연구 문헌을 검토하여 새로운 핀테크 연구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Bruton, Khavul, and Chavez(2011)는 성공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적용되는 개발도상국 금리는 선진국의 유사 금융보다 몇 배 더 높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De Castro, Khavul, and Bruton(2014)은 소액대출, 클라우드펀딩 및 P2P 금융을 포함한 새로운 대안적인 형태의 금융이 기업금융의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를 메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Fraser, Bhaumik, and Wright(2014)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기업에게 새로운 대안 형태인 핀테크가 기존 금융의 전통적인 방법 보다 더 많은 접근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World Economic Forum(2015)은 핀테크가 중소기업 대출과 신용위험평가에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핀테크 혁신은 기존의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백강(2015)은 핀테크를 수요자(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중소기업의 금융분야와 마케팅분야의 핀테크 활용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동학림, 백강(2016)은 벤처 및 창업기업의 새로운 직접금융 조달 수단으로 크라우드펀딩의 필요성과 대형금융기관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핀테크 연구는 미국, 영국 등과 비교하여 정책적 후진성과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등 일부 유형의 핀테크 솔루션을 중심으로 정책 및 제도적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소액, 저신용 금융수요자로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SME 중심의 핀테크에 대하여 체계적 증거, 데이터 부족,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배려 부족 등으로 SME 금융수요자 중심의 연구가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

<표1> SME 금융과 핀테크 선행연구

은행 및 간접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E 정보의 비대칭성과 금융 접근성 불리, 성승제(2014) · 관계형금융과 컨설팅 기능이 활성화필요, 손상호(2013) · 중소기업대출을 위해 신용보증확대조치 및 대출 안정화 필요, 서지용(2011) · 금융제약이 존재하여 재무제약과 투자의 양극화 현상 악화, 이성룡(2013)
정책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대출에 신용보증 비율이 높고 정책금융 부실화 등이 심화, 손상호(2013) · 정책자금이 은행의 위험회피성향으로 편중현상이 발생, 서지용, 이건희(2015) · 대기업 위주의 팩토링이 제공되어 중소기업 지원에는 소극적, 배정환(2008) ·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이 지원되고 있음, 전병영(2015) · 금융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신상품 제공이 필요 손상호(2013)
전자 금융 및 핀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의 새로운 금융 대안과 프레임워크 제시, Bruton, Khavul, Wright(2014), De Castro, Khavul, & Bruton (2014) · 핀테크 혁신은 기존의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에 새로운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환경을 제공, WEF(2015) · 핀테크를 수요자(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함, 백강(2015) · 벤처,창업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수단으로 크라우드펀딩의 필요성 보고, 동학림, 백강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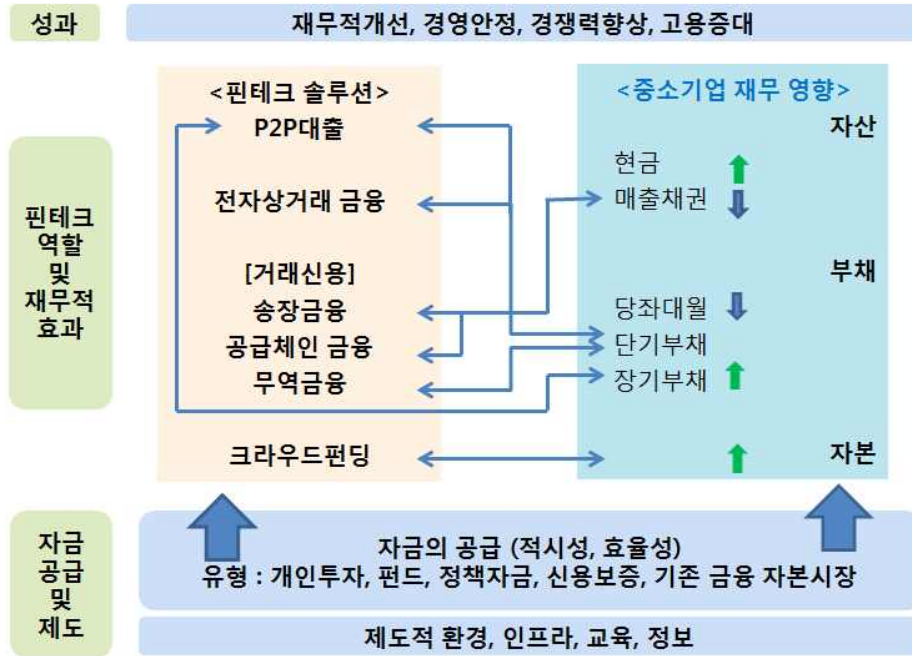
3. SME금융 핀테크

3.1. SME금융 핀테크 프레임워크

SME의 발전을 위해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지원되는 금융환경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핀테크 금융은 기존에 금융제약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SME에게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ME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핵심 핀테크 영역을 <그림1>에서와 같이 P2P대출, 전자상거래금융, 송장금융, 공급체인금융, 무역금융 및 크라우드펀딩 등 6개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SME금융 핀테크 프레임워크의 각 핀테크 솔루션은 전문화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ME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및 자본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 핀테크 솔루션은 SME의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또는 당좌대월과 같은 운전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SME금융 핀테크 솔루션은 단기부채의 장기부채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자금원을 제공함으로써 SME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SME금융 핀테크 프레임워크²⁾



아울러 SME금융 핀테크 솔루션은 적절한 위험 성향을 갖는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공급받아 생산적인 SME에 투자하도록 연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고용증대에도 기여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예금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사안이 된 만큼 은행예금이 위험한 대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면서 SME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SME금융 핀테크 프레임워크의 각 영역별로 특징, 핀테크업체 현황 및 사례, 효과, 한계점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2 P2P(peer-to-peer)대출

P2P대출은 일반적으로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중개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돈을 직접 대출하는 기능을 의미하며 운영상에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있지만 은행대출에 필요한 확실한 담보가 없는 SME에게 무담보대출을 제공하며, 혁신적인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데이터 중심의 위험평가 및 비전통적인 신용등급을 사용한다. 또한 대출 의사결정에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과 운영구성으로 작동하고, 법규준수, 규제 의무와 자본의 요구 기준의 영향이 적어 기존 금융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갖고

2) WEF(2015)의 SME 재무제표상의 핀테크 솔루션 영향 및 Bruton 외(2014)의 금융대안 핀테크 프레임워크 내용 참조

있다.

P2P대출 핀테크 솔루션은 SME들이 그동안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었던 자금을 간단한 서류준비와 직접 방문 없이 신속하게 제공받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유럽의 Zencap은 48시간 이내에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중국의 Tencent의 WeChat 플랫폼에서는 담보 없이 최대 \$3만까지 대출 의사결정 결과를 수분 안에 제공한다(Osawa, 2015).

전 세계적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600억~\$700억의 P2P대출이 제공된 것으로 집계되었다(Morgan Stanley, 2015; Positive Planet, 2015). 중국시장은 2014년 1,575개 플랫폼이 가동 중이고 2,500억 인민폐(\$400억) 대출규모를 기록하였다(Zhou, Arner, Buckley, 2015). 미국시장은 2014년 P2P SME대출이 \$50억이고, 2015년에 \$120억, 2020에는 \$470억으로 미국 전체 SME대출의 16%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은 40개 이상의 플랫폼 운영으로 세분화된 시장에서 2014년 SME에 \$25억의 P2P대출이 제공되었고, 2015년에 \$44억이 전망되고 있다. LendAcademy(2015)에 의하면 주요 P2P 플랫폼의 대출규모가 2014년 미국시장에서 OnDeck (\$12억), CAN Capital (\$10억), Kabbage(\$4억), Merchant Cash & Capital(\$2.77억), Strategic Funding (\$2억) 수준에 이르고, 영국시장에서 RateSetter(\$4.57억), Funding Circle (\$4.32억), LendInvest (\$2.36억)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금융연구원에 의하면, P2P대출이 저위험 고수익의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인식되고, P2P대출 신규규모가 2013년 36억 4000만원, 2014년 57억 8000만원에서 2015년 상반기에만 52억 6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P2P대출 핀테크플랫폼 어니스트펀드는 2015년 6월 P2P대출시장에 진입하여, 대출자에게는 연 4.9~15.5%의 중저금리 대출상품을, 투자자에게는 연 10% 수준의 저위험 고수익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주요 P2P대출 핀테크 업체들을 살펴보면, 랜릿, 피플펀드 등이 신용4등급 이하 개인에게 10%대 개인신용대출을 제공하고, 펀다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대 중금리 중소기업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8퍼센트, 빌리, 어니스트펀드 등에서 개인과 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대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테라펀딩, 투게더 등에서 건축자금과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며, 팝펀딩, 키펙펀딩 등에서 명품 등 동산을 담보로 동산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핀테크 선진국에 비교하면 내용과 규모에서 매우 초보적인 시장수준이다.

P2P대출 솔루션의 특성 및 주요사례는 다음 <표2>에서 설명하고 있다. P2P대출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에 따라 다른 대출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Kabbage 등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자기자본 기반에서 자금을 대출하고 신용위험을 자체에서 수용하지만, Lending Club 등의 플랫폼은 대부자와 대출자 사이의 중개만 하고 신용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갖지 않는다. OnDeck 등의 일부는 상기 내용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모델 성격을 갖고 대출자는 직접 기업에 대부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의 대출자금 운영과 관련하여서 Mediated Flow Model에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체 보유과정을 거쳐 SME에 대출자금을 제공하며, 일부는 플랫폼이 신용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손실준비금(provisioning funds)을 별도로 설정하기도 한다. 한편 Direct Flow

Model에서는 플랫폼이 대출자금의 소유권한을 갖지 않으며 투자자는 자금을 SME에 직접 전달한다(Jimubox, 2015).

P2P대출의 투자자 유형은 개인투자자가 기존 P2P 대출의 중심이었지만 점점 기관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투자자의 70 % 이상은 헤지 펀드, 연금 펀드, 자산 관리자 등의 기관투자자이다. P2P대출 플랫폼에서는 두개의 투자 클래스로 구분하여 개인 대출부문과 별도로 기관투자자만이 가능한 위험한 대출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P2P대출에 혁신적 신용평가모델들이 활용되고 있다. Yelp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평가 내용을 활용하고, LinkedIn은 대출자의 소셜네트워크이나 대출자의 이동통신 데이터 이용 등으로 그동안 제한된 신용기관 정보시장에서만 할 수 있었던 신용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P2P대출의 유형은 대부분 대출범위가 제한되고 다양한 신용상품의 유형을 갖는다. 기간대출은 대부분 무담보로 일반적으로 3~18개월 정도(예:OnDeck) 제공되고, 리볼빙 신용제공(예:Kabbage)은 특히 운전자본 요구사항에 유연한 수단을 제공하며, 가맹점 현금서비스(예:Credibly)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WEF, 2015)

<표2> P2P(peer-to-peer) 대출 솔루션 특성 및 사례

구분	특성 및 사례
· 비즈니스 모델 분류	- Kabbage : 제무제표 대출, 자체 자본 기반에서 자금을 대출, 신용 위험 자체 수용. - Lending Club : 대역자와 대출자 사이 연결만 촉진, 신용위험 부담하지 않음. - OnDeck : 하이브리드 모델.
· 자금 운영 및 권한 구분	- Mediated Flow Model : 자금의 일시적 자체 보유, 일부 손실에 대비한 별도 준비금 자금 설정. - Direct Flow Model : 직접 대출자에게 자금 중개, 대출자금의 소유권한 없음. (Jimubox, 2015)
· 투자자 유형	- 미국에서는 투자자의 70 % 이상이 헤지 펀드, 연금 펀드, 자산관리자 등의 기관투자. - 플랫폼은 두개의 클래스를 구분되어 개인과 별도로 기관 투자자만이 가능한 위험한 대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음.
· 혁신적 신용평가모델 유형	- Yelp : 온라인 플랫폼 사업평가 내용 활용. - LinkedIn : 대출자 소셜네트워크 활용. - 대출자의 이동통신 데이터 이용 등.
· 플랫폼 대출사례	- 미국시장 대출사례(2014년) : OnDeck (\$12억), CAN Capital (\$10억), Kabbage(\$4억), Merchant Cash & Capital(\$2.77억), Strategic Funding (\$2억). (LendAcademy, 2015) - 영국시장 대출사례 : RateSetter(\$4.57억), Funding Circle (\$4.32억), LendInvest (\$2.36억) 등.
· 플랫폼 대출유형	- Kabbage : 신용회전 특히 운전자본 요구사항에 유연한 수단 제공. - OnDeck : 기간대출은 일반적 3~18개월 제공 - Credibly : 일시적 유동성 부족 해결하는 가맹점 현금 서비스 제공.

기존 은행의 SME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확실한 담보 요구와 전통적인 신용평가 및 신용등급을 사용하고 있어 SME에 금융제약이 있다. 또한 은행이 갖고 있는 소액대출에 대한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의 운영과 강력한 법규준수, 규제 의무 및 자본기준을 요구하는 환경

때문에 SME 소액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기 P2P대출 솔루션의 특성 및 주요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P2P대출 솔루션은 SME의 당좌대월, 신용카드부채 등 단기부채를 감소시키고, 장기부채로 전환하는 효과와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 재무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3.3 전자상거래금융(merchant and e-commerce finance)

전자상거래 핀테크 솔루션은 고객의 매출채권에 대한 조기지급결제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SME의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솔루션은 전자상거래포털, 공급체인금융 및 송장금융을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지급결제처리업자는 소상공인들의 일일거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 은행 또는 P2P대출 사업자보다 소규모상인들에 대한 자금제공과 관련된 신용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 있다. 전자상거래 가맹점들의 결제가 지급결제처리업자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자신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됨으로써 정보수집이 용이하고 이러한 일체화된 지불시스템은 작은 소매업체의 매출에서 직접 대출상환을 할 수도 있다.

전자상거래금융은 온라인시장 및 결제처리에 의한 자금조달로 SME에 대한 소액금융 제공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온라인판매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Amazon 또는 Alipay의 자금을 다수의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고, 더욱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는 통신회사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므로 새로운 결제사업자들이 대출사업분야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금융의 발전은 SME의 당좌대월과 단기부채를 감소시키고,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결제처리업자 및 통신회사사업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SME 금융서비스 분야에 진출하였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금융은 각 기업들이 주로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시스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의 규모가 2013년 1조7290억원에서 2015년 5조7200억원으로 약 23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에서는 삼성페이가 시장을 선도하고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SME를 위한 핀테크로서 대출 및 운전자본 제공 기능과 역량을 갖춘 플랫폼 운영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인 Amazon, eBay, Alibaba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기업은 해당 플랫폼으로부터 운전자본과 대출을 제공받고 있다. Square, iZettle 등 결제처리업자들은 2014년부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afaricom, TELMEX 등 통신회사들은 미개척 대출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세계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거래의 상당량을 처리하고 있어 2020년에 플랫폼에서의 거래규모는 \$10조를 초과할 것이고 그중 3분의 2는 B2B 전자상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ingh, 2014).

<표3>은 주요 해외 전자상거래금융 플랫폼 특성과 SME금융 운영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Amazon 대출은 아마존 플랫폼이 중소기업에 신용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되었다.

초기에 미국과 일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영국과 중국 등 7개국에 기업대출 프로그램을 개시할 예정이다. Amazon은 상품이 품질되는 빈도, 제품 인기도 및 재고 순환 등의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대출자를 평가하는 내부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판매상인들의 재고구매를 돕기 위하여 \$1,000~\$600,000를 3~6 개월 기간대출로 연간금리 13 % 까지 제공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Alibaba는 자체 자금으로 소규모기업 고객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6월에 Alipay Financial 소액대출회사를 시작했다. Taobao의 P2P시장을 통해 제품판매 자금을 최대 \$80,000 까지 30일간 제공한다. 이러한 대출사업은 지리적으로 넓고 광범위한 대출상품을 제공하며, 중국건설은행과 중국공상은행과 제휴하여 자본기반을 확대했다. 초기 2년 동안에 대출규모가 RMB 130억 (\$21억)에 달했다. 일본 기반의 Rakuten Group은 대출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2013년부터 자회사 Rakuten Card를 통하여 플랫폼의 소상공인들에게 용자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마존과는 대조적으로, 대상기업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모든 SME에게 대출신청이 허용된다. "Rakuten Super Business Loans"은 주로 사업확장 및 유연한 운전자본 재정지원을 위한 것으로 100만엔에서 1,000만엔 (약 \$8,000~\$80,000) 범위의 대출자금이 제공된다.

PayPal은페이팔을 사용하고 있는 이베이 상인들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트랙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대출금이 초기에는 \$1,000~\$20,000에서, 2015년 초 \$85,000로 증가했다. 2015년 5월 이후 페이팔은 일일 \$200만 수준으로 연간 \$10억 가까이 대출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여 가장 큰 P2P 전용시장의 대출자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Square는 신용카드처리 및 결제솔루션 제공업체인데, 자회사 Square Capital를 2014년 5월에 설립하여 첫해에 현금서비스로 20,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사업 자금 \$2.25억을 공급하였으며, 2015년 4월 현재 자본금이 \$2,500만이고 연간 \$3억~\$4억의 대출을 기록 중이다. iZettle은 지불처리 대출분야에 최근 참여한 스웨덴 기반 회사로 2015년 8월 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인 "iZettle Advance"를 발표했다. 대출모델은 경쟁사와 다르게 상환금을 고정금리가 아니고 균일한 수수료로 부과하며, 상환금은 카드판매에 비례하여 매일 분할상환되고, 대출은 월 매출의 2배까지 빌릴 수 있다. 멕시코 기반 Telmex는 통신사업에서 혁신적인 회사로서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유형자산 투자를 위한 대출을 제공한다. 이는 신용확보가 부족하여 전통적인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SME를 대상으로 한다. Telmex는 고객의 통화 기록에 기초한 빅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신용위험평가를 하고 있으며, 대출은 650,000 멕시코 페소(\$40,000)까지 제공되고 있다.

<표3> 해외 전자상거래금융 플랫폼 특성과 SME 금융 운영사례

전자상거래금융 플랫폼 특성	운영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azon - 아마존대출은 아마존플랫폼의 SME에게 신용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 설립. - 초기에 미국과 일본에서 서비스를 제공, 영국과 중국 등 7개국에 기업대출 프로그램 시작 예정.(Reuters, 2015) - 아마존은 상품이 품질되는 빈도, 제품 인기도 및 재고 순환 등의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대출자를 평가하는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은 상인들이 재고 구매를 돕기 위해 \$1,000~ \$60만을 3~6개월 기간대출을 제공. 연간 금리 13% 까지 부과함.(ACCA, 2014)

부 알고리즘을 사용함.

• **Alibaba**

- 중국의 알리바바는 자체자금으로 소규모기업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6월에 Alipay Financial 소액대출회사를 설립했음.
- 대출사업은 지역적으로 확대하고 광범위한 대출상품을 제공함. 또한 중국건설은행과 중국공상은행과 제휴하여 자본기반을 확대함.

- Taobao의 P2P시장을 통해 제품 판매 자금을 \$8만까지 30일 운영자본으로 제공, 초기 2년간 대출 금액이 RMB 130억(\$21억)에 달함.

• **Rakuten**

- 일본 기반의 Rakuten Group은 대출사업으로 이동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2013년, 자회사 Rakuten Card가 플랫폼 상인들에게 용자 제공을 시작함.
- 아마존과는 대조적으로, 대상기업을 미리 제한하지 않고 대출신청이 가능함.

- "Rakuten Super Business Loans"은 사업확장 및 운전자본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100만엔에서 1천만엔 (약 \$8천~\$8만) 범위임.

• **PayPal**

- 페이팔(PayPal)을 사용하고 있는 eBay 상인들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하고, 상인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거래기록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규모는 연간 \$10억 가까이 대출한 것으로 가장 큰 P2P 전용시장의 대출자와 유사한 수준임.

- 페이팔은 초기 \$2만~\$1천 에서, 2015년 \$8만5천으로 대출금이 증가함.

- 2015년 5월까지 약 \$5억 대출함. 일일대출 \$2백만으로 증가함.(BizJournals, 2015)

- 2015년 4월에 Square Capital은 자본금이 \$2천5백만이고, 연간 \$3억~\$4억의 사업대출을 기록함.(Fortune, 2015)

• **Square Capital**

- Square는 신용카드처리 및 결제솔루션 제공업체로 자회사, Square Capital는 2014년 5월 설립되어 SME에 현금서비스를 제공함.
- Square Capital이 초년도에 2만개 이상의 기업에 사업자금 \$2.25억을 공급함. (Square Capital, 2015)

• **iZettle**

- 최근 참여한 스웨덴 회사로 2015년 8월 소기업대출프로그램인 "iZettle Advance"를 발표함.
- 상환금을 고정금리가 아니고 균일한 수수료로 부과하는 모델. 상환이 카드 판매에 비례하여 매일 분할 상환되고 (Sawers, 2015), 대출은 월매출의 2배까지 가능함.

• **Telmex**

- 멕시코 기반 TELMEX는 통신분야에서 혁신적인 회사로 특히 소규모사업자의 유형자산 투자를 위해 SME 대출을 제공함.
- 신용확보가 부족한 SME를 대상으로 하고, 고객의 통화 기록에 기초한 빅 데이터 분석에 근거하여 신용위험평가의 상당 부분 의존 하고 있음.

- TELMEX 대출은 MXN 65만(멕시코 페소) (\$4만) 까지 할 수 있음.

3.4 거래신용금융(trade credit finance)

SME들이 재무적 곤경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상거래에 따른 매출채권의 이행지체 또는 미회수 등이다. SME는 자체적으로 외상구매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또는 신용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SME의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부실채권 관리, 현금흐름의 안정성 확보 및 신속한 채권확보 등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거래신용금융은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거래신용금융은 전통적으로 기업 간 상거래(B2B)와 관련된 유동성 및 매출채권 관리를 위한 금융을 의미했으나, 핀테크 금융서비스에서는 송장금융(invoice finance), 공급체인금융(supply chain finance) 및 무역금융(trade finance)까지 고도로 구조화되고 복잡한 거

래신용금융 분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일부 무역신용과 관련하여 제한된 팩토링이 제공될 뿐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전된 핀테크 플랫폼으로 SME에 거래신용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서비스가 없으나 일부 은행에서 핀테크업체와 협력을 통한 서비스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3.4.1 송장금융(invoice finance)

SME가 신용으로 판매한 매출은 재무제표에 매출채권으로 남아있다. SME는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제3자 금융업자(factor)에게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팩토링금융에 전통적으로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팩토링금융은 종종 소규모 기업에 적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고정된 규모의 장기간, 복잡한 계약에 적용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송장금융 핀테크 솔루션은 SME가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미회수채권을 현금화하고 고객의 결제 지연에 대처하게 도와주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송장금융의 도움으로 SME들은 운영자금부족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및 수취채권의 회수가 송장플랫폼에 위임됨에 따라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자신의 시간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 송장금융 핀테크는 SME의 매출채권을 감소시키고,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 재무적 효과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SME의 경우 신용조건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채권에 대한 관리가 취약하다. 그러나 송장금융 핀테크서비스 공급자는 금융채권의 기본 신용조건에 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SME의 신용수준과 비교가 가능하고 SME고객에게 권장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 MarketInvoice와 같은 핀테크업체는 소규모 기업 고객에게 정보를 피드백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SME들은 온라인 채권금융회사들을 통해 빠르고 쉽게 미수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핀테크는 매우 불투명한 B2B 금융시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요 송장금융 핀테크 회사인 MarketInvoice(영국), Fundbox(미국), NoviCap(스페인), Finexkap(프랑스) 등은 지난 수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했고, MarketInvoice는 5억파운드 이상의 송장금융을 SME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Tradeshift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효율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와 자동화된 채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Xero 또는 QuickBooks와 같은 송장금융플랫폼은 SME들이 자신의 회계소프트웨어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처리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의 즉시 결제대금을 수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3.4.2 공급체인금융(supply chain finance)

공급체인금융은 SME의 운전자금 상황을 개선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송장금융과는 달리 보통 구매자에 의해 개시된다. 전통적인 공급체인금융은 소규모 공급자와 구매자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공급업체는 송장할인의 조기결제를 선택할 수 있고, 조기결제와 구매자에 의해 송장이 최종결제 되는 사이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제3자 금융공급자에 의해 할인·증개되어, 공급체인금융은 SME의 매출채권을 감소시키고 현금흐름을 개선시켜 효율

적 운전자본 운영과 재정압박에서 벗어나는 재무적 효과를 SME들에게 제공한다.

공급체인금융 핀테크 솔루션은 SME가 일반적으로 대형고객의 우수한 신용도에 의존하여 저렴한 비용의 운전자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형구매자는 90일의 지불 조건을 확장할 수 있고, SME는 공급과정에서 과도한 재정압박 없이 자신의 운전자본 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다(ACCA, 2014). 공급업체로서 SME는 별도의 채권팩토링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업체와의 관계가 강화되고, 공급자와 구매자는 전자송장 등을 통합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 공급자는 공급체인금융포털에 송장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QuickBooks 또는 Xero 같은 회계소프트웨어를 통해 자신의 청구서를 보낼 수 있다.

공급체인금융은 현재 전체 채권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지만 주요 은행의 공급체인금융 규모가 연간 30-40%의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유럽, 인도, 중국 등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의 공급체인금융과 관련한 핀테크 플랫폼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3.4.3 무역금융(trade finance)

SME는 온라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그들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상품제작 기간과 자재구입 및 배송에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양한 거래위험을 직면하게 된다. 또한 전통적인 무역금융은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양쪽 국가의 은행이 개입하여 다소 과정이 복잡하고 자세한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역금융 핀테크 솔루션은 비은행 사업자들에게 저비용으로 기존의 거래신용 요구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물리적)송장을 포함한 기존 문서처리 방식은 소규모기업을 위한 통합된 전자시스템 가동에 의해 온라인솔루션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무역금융은 SME의 단기부채를 감소시키고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 효율적 재무결과를 제공하여 SME의 재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BIS(2014)는 신용장 및 무역신용보험을 포함한 은행중개 무역금융 규모를 \$6조~\$8조로 추정하고, Santander Innoventures(2015)는 글로벌 무역금융 수익을 2013년 \$150억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8%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국제무역 거래신용은 주로 기업 간 당사자 중 한편이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무역신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무역금융은 은행의 지속적인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역금융 핀테크 솔루션은 향상된 데이터와 위험분석기법의 사용으로 무역금융 기업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사물인터넷은 다수의 프로세스 단계를 제거하고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경감시키는 제품의 실시간 추적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서비스를 일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표4>는 SME 거래신용금융 핀테크의 장점과 기존 금융서비스의 한계를 각 솔루션 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4〉 SME 거래신용금융 핀테크의 특성과 기존 금융서비스의 한계		
구분	거래신용금융 핀테크의 특성	기존 금융서비스 한계
송장	· 빠른 미결제 매출채권의 현금화.	· 기존 팩토링금융은 중소기업에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시스템통합으로 업무개선과 신속한 처리. · 개별채권 기준으로 대출신청 및 즉시 결제 가능. · 신용데이터 운영에 따른 정보제공. · 채권관리솔루션으로 팩토링금융 제공. · SME의 매출채권을 감소시키고,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 재무적 효과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 고정된 규모의 장기계약 유지 필요. · 아직까지 선진국시장에서 주로 활용.
공급체인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공급자가 공급체인금융 포털에 직접 청구. · 주로 대형 구매고객의 우수한 신용도에 따라 저비용 금융을 제공 받을 수 있음. · SME의 공급과정에서 재정압박 해소. · SME의 매출채권을 감소시키고, 현금흐름을 개선시켜 효율적 운전자본 운영과 재무적 개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대기업 위주의 시장. · 주요은행의 공급체인금융이 급성장하고 있음. · 아직 성장 중인 틈새시장으로 세계적 확산이 예상됨.
무역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은행 사업자에 의한 저비용 금융 서비스 가능. · 소규모기업을 위한 전자시스템 통합 가동. · 송장 등 문서의 온라인 처리 및 시간 단축. · 향상된 데이터와 위험분석기법 사용. · 실시간 제폭 추적으로 거래위험 경감. · SME의 단기부채를 감소시키고,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 효율적 재무 결과를 제공하여 SME의 재무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정책금융으로 신용제공. · 무역거래 양쪽 국가 은행이 개입. · 복잡한 과정과 자세한 서류 필요. · 신용장 및 무역신용보험 위주의 은행중개. · 대부분 거래완료 시까지 거래위험에 노출.

3.5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SME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SME는 기존 금융에서 자금조달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SME의 금융제약을 극복하는 대안금융으로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은 특정 개인과 조직의 활동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이다.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솔루션은 집단지성 효과, 대수의 법칙 및 포트폴리오 효과를 통하여 SME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위험을 경감시키고, 또한 플랫폼의 사전점검에서 정보교환과 다수 투자자들에 의한 검토를 통하여 정보비대칭을 현저하게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전통적인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SME들에게 새로운 자기자본 조달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며, 마케팅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동학림, 백강, 2016). 그러나 SME는 정보공개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최근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 2014년 전 세계규모는 162억 달러로 전년도 61억 달러 대비 166%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도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Massolution, 2015). 크라우드펀딩 해외사례는 미국이 양적인 규모에서 우위에 있으나 영국이 질적인 면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2012년부터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현재 14개의 투자형 플랫폼이 활동 중이고 추가로 10개의 플랫폼이 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2014년 총 84백만 파운드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되어(Nesta 추정) 전년도 대비 3배나 높은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의 평균 규모는 199,095 파운드, 투자자의 투자 잔액 평균은 5,414 파운드이고, 투자자의 62%가 이전에 비상장증권에 투자경험이 없

는 일반투자자들이다. Crowdcube와 Seedrs는 영국에 소재한 플랫폼으로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Crowdcube는 미국의 사모방식 플랫폼을 제외하고 세계 1위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양적인 면에서의 시장 리더인 반면, Seedrs는 유럽에서 10위 수준에 있지만 투자자 보호 등 질적인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질적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 Kickstarter나 Indiegogo 등 널리 알려진 플랫폼들이 있지만, 이들은 금전적 대가가 아닌 상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비수익모델의 후원형 플랫폼들이므로 지분형과는 차이가 있다(동학림, 백강, 2016).

다음 <표5>는 크라우드펀딩의 특성과 기존 금융서비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5> 크라우드펀딩의 특성과 기존 금융서비스의 한계

구분	크라우드펀딩의 특성	기존 금융서비스 한계
크라우드펀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E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위험의 경감 효과, 집단지성 효과, 대수의 법칙 및 포트폴리오 효과를 통하여 SME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위험을 경감시키는 효과. · SME 사업의 자금껌을 줄여 기존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실패를 보완하는 대안금융. · 인터넷을 통하여 낮은비용으로 자금 조달 및 마케팅 효과를 얻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E의 불확실성과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기존금융에서 금융제약 존재.

이러한 SME금융 핀테크는 SME가 안심하고 신규 및 기존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SME의 매출증대와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ME들은 핀테크 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안정된 현금흐름 및 수익성 유지가 가능하고, 용이한 매출채권 양도 및 매각 등으로 낮은 금리의 운전자금 추가확보가 가능하며,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결제조건 및 신용거래 확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4. SME금융 핀테크 발전방향

4.1 핀테크 제도 및 규제환경 개선방향

WEF 핀테크보고서(2015)에서 우리나라는 핀테크관련 법제도가 없거나 규정되지 않은 핀테크 후진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육성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 (2015년 11월)에서 우리나라의 풍부한 핀테크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더딘 성장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정책 등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극복을 위하여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 추진,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등의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2016년 2월)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 등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등 국민 금융편익의 확산을 추진하고, 핀테크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정부기관이 핀테크산업 발전에 건설적인 중재자 역할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국 규제기관인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기존의 금융산업을 경쟁적이고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핀테크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체제를 결정하는 미래지향적 실행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은 금융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인 형태의 시장조성과 혁신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정책 추진으로 현 금융사업자와 핀테크창업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계층시장을 만들어 핀테크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핀테크는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에서 전반적인 기존 금융발전의 한 부분으로만 핀테크를 고려하고 있어 핀테크 선도국에서와 같은 포괄적인 핀테크 발전을 도모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핀테크 혁신자들에게 규제기관에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것은 간단하지만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주요 국가들이 이러한 규제기관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규제기관의 인원수를 증원하였다. 영국 FCA는 혁신허브를 구축하여 핀테크 업체의 규제환경에 대한 조기적응을 지원, 혁신적 기업 창업을 위한 투자자 세제혜택, 오픈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업 지원 정책 등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마련했다(김남훈, 2015). 싱가포르 통화당국은 핀테크연구에 SG \$2.25억을 책정했고,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는 창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방근무시간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핀테크지원센터가 출범하여 영국의 FCA와 유사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핀테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은 전통적으로 신중하고 안정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건설적인 소통을 위한 접근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혁신적인 규제서비스가 필요하고 잘 정의된 절차로 사업자에게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적시에 혁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하여 비합리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고,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라는 면책제도 등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문병순, 허지성, 2014). 또한 규제기관은 신중함과 혁신의 권한부여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핀테크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는 잘 정비된 규제와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일례로 정부는 국민 및 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은 핀테크사업의 시작과 발전 환경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KYC(Know Your Customer), 신원확인, 특히 위험평가의 영역은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정부의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권 및 관련 업계의 정보공개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핀테크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데이터 활용은 미국, 유럽, 호주가 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 FCA는 개방 은행 API 상담으로 핀테크 등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오픈데이터 정책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Yodlee라는 회사가 주요은행 계좌정보, 지출내역에 대한 API를 제공하여 Paypal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다. 호주에서는 CIFR(국제금융규제센터)가 규제 분석 및 데이터 구조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고 있

다(The Business Times, 2015).

SME금융 핀테크는 미국, 영국 및 중국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전문화된 핀테크 플랫폼 시장환경의 구축을 통하여 기존 금융시장에서 하지 못하는 새로운 틈새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SME수요에 특화된 금융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는 복수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정부 각 부처별 정책이 융합된 중소기업지원과 금융규제 완화 등 포괄적인 정책금융 틀을 제공하되, 세부내용은 SME금융 핀테크가 보완하는 시장기능 안에서 발전하게 하는 환경구축이 필요하다.

주요 핀테크 제도 및 규제환경 개선방향으로 우리나라의 SME금융 핀테크는 금산분리, 오프라인 대면인증, 인증 매체분리의 원칙, 다양한 금지 규정 등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 및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술 지침 등으로 인해 혁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과 핀테크 시장의 엄격한 진입장벽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출이 어려운 환경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선진국에 대비하여 사업등록요건, 보안규정 등의 높은 규제 장벽이 걸림돌이 되어 IT와 금융시스템의 융합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진입장벽 규제로 전자금융업법, 금융실명법, 금융정보 보유제한 등이 있으며, 투자계약 규제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공정거래법, 클라우드펀딩 등이 각종 핀테크 발전 저해와 부작용을 발생시킬 소지를 갖고 있다(창조경제연구회, 2015). 기존 금융에 대한 개혁을 통한 핀테크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금융위원회 등의 추진방향에는 많은 관련 법규의 정비와 정부규제 철폐, 부처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핀테크발전특별법의 형태로 기존규제를 통합하고 대통령 직속기구 등으로 혁신추진의 구동력을 갖추고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4.2 P2P대출 핀테크 발전방향

P2P대출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상황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P2P대출에서 자금조달이나 투자방식에서 대출형 클라우드펀딩과 실제로 유사한 P2P 대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투자형 클라우드펀딩은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P2P대출은 개인과 개인간의 P2P대출 계약과 P2P대출중개업자의 단순중개 형태가 아니고 P2P대출중개업자가 대부업체로 등록하여 대부업자와 개인간 계약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서영미, 2015).

한편 우리나라는 사업자 위주의 핀테크 제도를 운영함에 반하여 중국은 철저하게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소비자를 고려하고, 경제발전의 속도를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해법으로 핀테크를 활용하고 있다(김명아, 2015). 중국의 SME는 국가경제 생산에 80%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20%만이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제공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SME는 비정상적인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핀테크 활용정책으로 중국은 기존 그림자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과 SME가 P2P플랫폼에 대출자나 대부자로 되었으며, 2015년 7월 현재 P2P대출 플랫폼이 2,136개가 운영되고 약

RMB825억(약 \$134억)의 거래실적을 기록하였다(Douglas, Arner, Janos, 2015). 이러한 중국의 SME금융 혁신을 위한 핀테크 활용은 우리의 SME금융 제도적 환경 혁신에 참고하여야 할 좋은 사례이다.

기술적·제도적으로 SME P2P대출을 위한 핀테크혁신을 지원하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불결제처리 및 금융인프라가 포함된 기본적인 인터넷이나 모바일기술 등의 IT인프라가동이 필요하고, SME의 정보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정보와 SME의 재무정보를 활용할 수 있거나, P2P대출플랫폼이 모바일사업자, 소셜미디어 및 행동패턴 등의 SME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규제의 관점에서 P2P대출 핀테크플랫폼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하여 P2P대출 비즈니스모델을 지원하고 적어도 사업발전을 방해하지 않는 환경제공이 요구된다. SME P2P대출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핵심요소들로는 원활하게 운영되는 다수의 플랫폼이 필요하고,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민간자본투자가 필요하고, 많은 SME대출자들이 신뢰를 갖고 P2P대출을 활용하여야 한다. 한편 P2P대출은 새로운 금융현상으로 제도적 규제가 미국과 같은 자본시장법 체계로 편입하거나 핀테크 신생기업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 규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이 되도록 하여 새롭게 설정해야 하지만, 엄격한 규제에 P2P대출의 현재 갖고 있는 장점들을 빼앗아 투자의 매력을 잃게 할 수도 있으니 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와 수요자들은 P2P대출과 관련된 여러 위험과 단점들을 이해해야 한다. P2P대출 플랫폼의 소액투자자들은 위험이 높은 투자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SME 소액대출자는 비교적 높은 금리로 항상 적절하게 금리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패할 비수익성 사업에 자금대출을 하거나 온라인 사기의 위험성도 있다(Positive Planet, 2015). 또한 시장상황 악화, 주식시장 붕괴, 뱅크런 등 고유한 체계적(시스템) 리스크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유동화, 보험, 레버리지 투자 등의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사기나 허위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입증책임이 있어 금융기관이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창조경제연구회, 2015), 대출채권을 재판매할 수 있는 유통시장과 P2P대출금에 대한 유동(증권)화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 투자자들의 다양한 노출 위험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금융사고 방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위험관리를 위한 시장환경 조성에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대출수요자로서 SME고객은 개인데이터의 사용 및 공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민감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보안원의 2016년 금융IT 보안 10대이슈 전망보고서에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하여 정보보호 법령상의 명확화, 투명한 인프라 운영, 금융회사의 기술적·관리적 비식별화 방안 마련을 통한 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협에 대응 등 금융거래 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침 개발을 통하여 정보위험 최소화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보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확실적인 보안수준을 요구하는 사전규제 방식이나 미국과 영국은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거래규모 및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필요 보안수준을 차등 적용하고 사후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금융개혁 방향에 맞추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 추진 중이다.(성승제, 2015)

핀테크에 직접 자금공급을 위하여 정부는 SME 정책지원을 위한 예산의 일부를 전용할

수 있다. 정책자금은 SME 신생산업의 신뢰성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P2P대출자들이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British Business Bank는 4천만 파운드를 P2P대출자인 FundingCircle을 통해 18개월에 걸쳐 SME에 대출하도록 하였다(UK Government, 2014).

영국정부는 핀테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P2P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안금융 개발지원(대체금융 대부업자 성장지원)을 중소기업 지원책과 연결 추진하고, 대규모 일반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신청을 거절할 경우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용제공이 거절된 기업의 정보를 공유하여,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송장금융과 같은 핀테크 등의 대안금융(challenger banks)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핀테크발전에 따른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의 대응과 역할에 대하여 은행은 핀테크가 제공하는 기회와 은행의 전통적인 SME대출 비즈니스모델에 부정적인 도전이 동시에 되고 있는 환경을 잘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은행은 시장점유율의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SME대출 증가를 자체적으로 시도하거나 P2P대출사업에 직접 진출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은 소규모사업대출에 비용효율 개선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은행은 내부혁신을 추구하고 자신의 은행라이선스 보호 아래 온라인모델을 개발하거나 기존 P2P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다. 핀테크의 발전으로 기존 금융업의 대면 채널 중심 영업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기존 은행의 사일로(silo)식 상품 및 채널 위주의 조직에서 고객 중심으로 상품·조직 및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모바일 채널 중심으로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개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소통을 용이하게 조정 역할을 하여야 하며, SME P2P대출 관련한 다양한 중간사업자들의 활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출사이트의 정보제공과 상호 연결하여 주는 중개사업자, 투자자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 소셜미디어 또는 전화기록 등 비 전통적 데이터기반의 신용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4.3 전자상거래금융 핀테크 발전방향

핀테크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간편결제 등 전자금융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사 등 감독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을 7가지 업종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을 적절히 규정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서 전자금융업자는 재무적 요건으로 40~60%의 유동자산비율 준수, 2년 이상 경력의 전산전문인력 5인이상 보유, 전자지급서비스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보호대책 등과 같은 세부적인 요건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소규모 스타트업 등 신규사업자들에게는 가장 큰 진입 제약 조건들이다(채규향, 조민경, 배문선, 2015).

SME 전자상거래금융과 관련한 시장환경 위협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시장의 금융환경이

몇몇 대형 결제사업자와 통신사업자에게 매우 집중되어 있어 잠재적으로 건전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대형사업자가 제공하는 SME대출 형태는 비즈니스관계의 일부로서 외부에 투명성이 적고 규제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러한 사업자들은 대출사업 경험부족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내부 판매자정보부터의 위험추정은 SME의 신용위험을 적정하게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Reuters, 2015).

전자상거래금융 핀테크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SME 전자상거래금융의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진입 요건은 완화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규모 증가에 따라 책임이 강화되는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규제에 있어서도 포괄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을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화하고, 서비스 장애 및 보안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킹 및 부정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소재 구분 및 복원역량을 갖추도록 규제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대형결제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SME 대출에 대한 객관적 신용평가 및 적절한 규제운영, 국가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정보 제공 등이 요구된다.

4.4 거래신용금융 핀테크 발전방향

송장금융, 공급체인금융 및 무역금융 관련 거래신용금융 핀테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업모델과 법적 제도적 상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거래신용금융 핀테크는 전자상거래금융 핀테크의 일부분으로 관련 법규와 규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영국, 중국 등의 거래신용금융 핀테크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송장금융은 전자인프라의 용이한 활용 여건과 채권판매가 완전하고 통합적인 구조로 법규에서 허용하는 환경 아래서 편리한 단기자금 운영수단으로 SME의 재무적 개선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송장금융은 전자계좌관리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은행 및 지불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는 환경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 선진국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SME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B2B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통하여 전자상거래대출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용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송장금융 핀테크에서 요구되는 신용제공 등의 부분적 지원기능은 이미 정책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본격적인 송장금융과 관련한 핀테크 플랫폼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SME에 부적합한 기존 팩토링금융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장기계약 유지를 요구하는 상황을 개선시키는 송장금융 분야에 핀테크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MarketInvoice(영국) 등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신용정보 확보, 금융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등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공급체인금융 핀테크솔루션은 비교적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SME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SME를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투자은행은 네덜란드 SME가 대형기업과 공급체인금융에서 송장지불 지연을 줄이고 금융조건을 개선시킨 혁신적인 역방향 팩토링플랫폼에 대한 초기지원으로 €1억을 투자했다(EIB, 2014). 한편 중국의 SME도 공급체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급체인금융 핀테크를 활

용하고 있다. 중국의 선전발전은행(Shenzhen Development Bank)은 자동차, 철강, 가전 등의 대형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공급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전발전은행의 온라인 공급체인 금융서비스는 은행의 전산망과 기업의 전자상거래 금융정보를 공유해 기업과 연계된 판매업체, 공급업체, 물류업체 등과의 거래정보를 은행과 공유하여 공급체인의 복잡한 금융업무를 온라인상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에너지기업인 Sinopec(中石化)은 2조원대 규모의 SC2B(Supply Chain to Business) 전자상거래 플랫폼 EPEC를 2016년 4월 출범시켰다. Sinopec은 EPEC를 통해 수직계열간 산업망, 기업간 공급망을 결합시켜 인터넷과 공급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용품 전자상거래 운영모델로 지난 1년 동안 시범운영하면서 중국 최대 산업용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공급체인금융은 주로 대기업 위주의 시장이고 핀테크 선도국에서는 주요 은행의 공급체인금융이 급성장하는 틈새시장으로 세계적 확산이 예상된다. 우리도 중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SME금융 지원의 하나로 기존 금융권이나 대기업이 참여하는 공급체인금융 핀테크 플랫폼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보험법에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SME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비하는 무역보험제도 운영 등 SME 거래신용금융과 관련한 부분적인 비영리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출팩토링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은행들이 안정성과 수익성 위주의 영업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우량수출거래 위주로 수출팩토링을 지원하고 SME지원에는 매우 소극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배정환, 2008). 또한 2007년부터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을 시작한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플랫폼(uTradeHub)은 무역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기관 간에 다수 대 다수의 연계 네트워킹을 통해 무역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SME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은 없다(문희철, 조품, 2013). 국내의 SME 무역금융은 주로 정책금융으로 신용이 제공되며, 보험회사가 무역보험으로 일부 손해위험 담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SME의 무역과 관련한 핀테크 플랫폼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SME가 무역금융의 활용에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SME에 대한 무역금융 옵션이 종종 제한되는 것이다. SME는 무역금융의 복잡한 과정을 처리할 자원이 부족하고 어떤 경우에는 은행들이 SME에게 무역신용을 제공하지 않는다. 은행들의 무역신용은 대형 국제거래의 위험을 담보하고 선행유동성을 제공하지만, 많은 SME에게 무역신용제공이 소극적이어서 국제시장에서 SME의 상품판매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ICC, 2014). 그러므로 SME는 정책적인 무역보험제도에 대부분의 의존하고 있고, 은행이 제공하는 수출팩토링은 고비용으로 활용이 어려운 무역금융의 환경개선을 위한 핀테크가 필요하다. 무역금융 핀테크 솔루션은 빅데이터 등의 향상된 신용데이터와 위험분석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사물인터넷 등의 활용으로 절차의 간소화 및 위험을 경감시키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자무역플랫폼(uTradeHub)에 SME금융 기능을 추가하면 무역금융 핀테크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물론 비은행 사업자에 의한 무역금융 핀테크 시장 진출이 필요하지만 요구되는 인프라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금융 특히 은행은 기존 수출팩토링 등의 축적된 경험과 정보 및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역금융 플랫폼 운영으로 SME 금융서비스 개선을 시킬 수 있다.

4.5 클라우드펀딩 핀테크 발전방향

투자형 클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개정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클라우드펀딩은 온라인소액중개업자로 정의된 플랫폼 사업자가 소액온라인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SME 등에 중개해주는 방식이다. 투자형 클라우드펀딩은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고, 대출형 클라우드펀딩인 P2P 대출은 현행 법규상 대부업으로 분류되어 규제되고 있다.

미국은 2012년 클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JOBS 법을 통과시켰지만, 미국 증권위원회는 투자자의 손실을 우려하여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금지하였다. 영국 금융위원회(FCA)도 2014년 클라우드펀딩 규정을 재정비하면서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업체의 추가 비용을 분석하여 추가 규제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클라우드펀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비합리적인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클라우드펀딩 등 핀테크관련 법규 및 규제의 변경이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비합리적인 규제의 폐지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문병순, 허지성, 2014).

SME에 대한 클라우드펀딩 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인 SME와 공급자 간에 존재하는 불투명성과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스템적 역할을 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장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플랫폼 가동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SME와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역동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것과 플랫폼이 검증을 통하여 허위정보나 사기거래를 걸러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플랫폼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SME의 기업가치평가(valuation)를 제공하고,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플랫폼에 관한 법률적 제한은 클라우드펀딩의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 플랫폼이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 중개업무만 하도록 한 제한규정은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플랫폼이 시장 조성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동학림, 백강, 2016).

5. 결론

본 연구는 SME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핵심 핀테크 영역을 P2P대출, 전자상거래금융, 송장금융, 공급체인금융, 무역금융 및 클라우드펀딩 등 6개의 프레임워크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 핀테크 솔루션이 SME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하고, 각 핀테크 플랫폼 유형별 특징 및 선진 사례를 살피고, 현재 우리나라의 핀테크 관련 법적 제도적 상황을 검토하여, 각 핀테크 솔루션이 우리나라 SME금융의 대안이 되기 위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SME금융 핀테크 프레임워크의 각 핀테크 솔루션은 전문화된 특성을 갖고 있으며, SME의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자본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 핀테크 솔루션은 SME의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또는 당좌대월과 같은 운전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단기부채의 장기부채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자금원을 제공함으로써 SME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SME 핀테크는 시장기능에 따라 혁신 및 발전이 진행되어야 하고, 규제와 정책제도는 기업조정자가 되어 핀테크 금융서비스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존 금융을 보호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SME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핀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여러 법규의 정비와 정부규제 철폐, 부처간의 조정 등 많은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발전특별법 등의 형태로 기존규제를 통합정비하고 대통령 직속기구 등으로 혁신추진력을 갖춘 조직에서 발전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P2P대출 핀테크 발전을 위하여 SME관련 법률의 정비, 정보의 활용과 보안관리, 채무위험관리, 채권의 유동화시장 조성 등의 환경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연계된 대안 금융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갖추도록 P2P대출 플랫폼 환경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존 금융권, 특히 은행은 사일로화된 상품 및 채널 위주의 조직에서 고객 중심으로 상품·조직 및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모바일 채널 중심으로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금융 핀테크 발전방향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SME와 관련한 전자상거래금융의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될 수 있도록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대형결제사업자의 독과점의 방지, SME 대출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평가 및 적절한 규제운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정보 제공 등이 요구된다.

거래신용금융 핀테크와 관련하여서는 송장금융 분야에 핀테크 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SME 거래신용정보의 공유 및 활용 환경 제공, 송장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등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ME금융 지원방안의 하나로 기존 금융권이나 대기업이 참여하는 공급체인금융 핀테크 플랫폼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SME가 당면하고 있는 은행의 고비용 수출팩토링 등의 무역금융 제약을 개선하기 위한 무역금융 핀테크 솔루션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클라우드펀딩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대출형과 투자형에 대하여 적용 법규가 다르고 제한규정으로 시장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자금의 수요자인 SME와 공급자 간에 존재하는 불투명성과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특히 다양한 SME와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역동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검증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SME금융에 대한 핀테크의 영향에 대해 최초의 포괄적 검토를 하여 SME금융에 있어 핀테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데 있다. 핀테크

는 기존에 금융제약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SME에게 금융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고용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의 SME 핀테크 금융환경이 아직 고객 중심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특히 거래비용에 대한 중소기업 사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 시장 발전이 미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SME의 핀테크 금융솔루션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논의로 한정되었는바, 향후 각 SME 핀테크 솔루션 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남훈(2015), “부상하는 Fintech 동향과 IT 및 금융업에 대한 시사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15.4.
- 김명아(2015), “중국의 핀테크 관련 정책과 전망”, 이슈분석, 중국전문가포럼, 대외경제연구원, 2015.
- 동학림, 백강(2016), “창업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위한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연구”, 2016년 2월 26일 증권학회 학술대회, Working paper.
- 문병순, 허지성(2014),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LG경제연구원, Business Insight, 2014.12.3.
- 문희철, 조품(2013), “한국 중소기업의 uTradeHub 활용 및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Vol.15 No.1.
- 배정환(2008),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으로서 국제팩토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貿易商務研究, Vol.39.
- 백강(2015), “중소기업을 위한 핀테크 활용방안 및 정책과제”, ie 매거진, Vol.22 No.3
- 서영미(2015), “국내외 P2P대출중개업 관련 규제 동향 및 시사점”, 금융투자협회, 2015.08.05., 7면
- 서지용(2011),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행태에 관한 특징적 연구”, 大韓經營學會誌, Vol.24 No.3,
- 서지용, 이건희(2015), “온렌딩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중소기업의 현금보유 행태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5,
- 성승제(2014), “중소기업의 금융환경과 관계형금융에 대한 법적 고찰”, 경제법연구, Vol.13 No.3,
- 성승제(2015), “신기술기반 전자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5, 2015.10.
- 손상호(2013), “중소기업금융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과제”, 주간 금융 브리프, Vol.22 No.21,
- 이성룡(2013), “은행의 시장지배력이 중소기업의 내부자금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中小企業研究, Vol.35 No.1,
- 전병영(2015), “무역금융지원제도의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 창조경제연구회, “IT를 통한 금융혁명, 핀테크 - 2015년 창조경제 14차 포럼 보고서”, 창조경제연구회, 2015.2.24.
- 채규향, 조민경, 배문선(2015), “신중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요인과 과제”, 한국은행 지급결제조사자료, 2015-2, 2015.11.
-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 ACCA(2014), “Innovations in access to Finance for SMEs”, Association of Chartered Accountant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2014), “Trade finance: developments and issues” , CGFS Papers, No 50. Basel: BIS.

BizJournals(2015), “After IPO 2.0 \$46B PayPal has big plans for small business” , New York Business Journal.

Bruton G., S. Khavul, D. Siegel and M. Wright(2014), “New financial alternatives in seeding entrepreneurship: micro finance, crowdfunding and peer-to-peer innova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042–2587, 9–26.

Bruton, G.D., Khavul, S., & Chavez, H.(2011), “Microlending in emerging economies: Building a new line of inquiry from the ground up” ,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2, 718–739.

De Castro, J., Khavul, S., & Bruton, G.D.(2014), “Informal firms and meso institutions in Latin America” ,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8(1), 75–94.

Douglas W. Arner, Janos Barberis(2015), “FinTech in China:from the shadows?” , *The Journal of Financial Perspectives:FinTech*, Winter 2015, Volume3 – Issue 3.

Fraser, S., Bhaumik, S., & Wright, M.(2014), “What do we know about entrepreneurial fina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growth?” , To appear in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2014), “Rethinking Trade & Finance. An ICC Private Sector Development Perspective”

Jimubox(2015), “Corporate Presentation” , Lendit Conference.

LendAcademy(2015), “Global Overview Online Lending” , Lendit Conference.

Massolution(2015), “2015CF 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 Massolution.com.

Morgan Stanley(2015), “Global Marketplace Lending: Disruptive 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Osawa, J. (2015): Tencent’ s WeChat App to Offer Personal Loans in Minutes. *The Wall Street Journal*.

Positive Planet(2015), “New Insights Into An Evolving P2P Lending Industry”

Rakuten(2013), “Launch of Rakuten Super Business Loans for Rakuten Ichiba merchants”

Reuters(2015), “Premier Community Bank Adopts Mirador Financial’ s Loan Technology to Deepen Personalized Lending Services to Small Businesses”

Santander Innoventures(2015), “The FinTech 2.0 Paper: rebooting financial services”

Sawers, P.(2015), “European payments processor iZettle raises \$67M and

launches a cash advance service for SMBs” , VentureBeat.

Singh, S.(2014), “B2B eCommerce Market Worth \$6.7 Trillion by 2020: Alibaba & China the Front-Runners” , Forbes.

Square Capital(2015), “We’ ve Now Extended \$225M in Business Financing”

The Business Times(2015), “Banks free to test certain digital innovations without approval” , MAS.

UK Government(2014), “New £40 million investment by British Business Bank to support £450 million of lending to smaller businesses” , Press release – GOV.UK.

World Economic Forum – WEF(2015), “The Future of FinTech: a paradigm shift in small business finance”

Zhou, W., Arner, D., Buckley, R.(2015), “Regulation of Digital Financial Services in China: Last Mover or First Mover?”